

필리핀 사업 진출 가이드

저희 SGV는 기업 활동 및 리더 육성을 통해 더 나은 필리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GVforABetterPhilippines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목차

인사말.....	1
필리핀에 대한 소개.....	3
경제 개요.....	7
조세.....	11
필리핀에서 창업하기.....	15
필리핀 이민.....	17
투자 정책 및 인센티브.....	19
연락처.....	28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장관 인사말



페르난데스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인사말



MESSAGE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we would like to extend our warmest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to SGV & Co. as they publish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2022*.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s the regulatory arm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in areas such as trad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aims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job generation. In pursuit of these objectives,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serves as one of our key priorities, as the country builds back better amid the economic impacts brought by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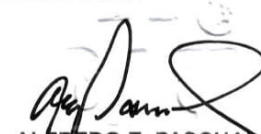
Over the next six years, DTI will focus on key priorities aligned with the policy thrusts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such as: (1) Upgrading, upskilling, and upsizing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2) Foster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for competitiveness; (3) Promoting and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4)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affordable food; (5) Reconfiguring Philippine export sectors into industry clusters; (6) Improving ease of doing business in the country; (7)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will attract investments and expand the market access of Philippine exports; (8) Empowering and securing the rights of consumers; and (9) Transforming DTI into an agile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Filipino people.

As we further strive to be a top investment destination in Asia, improving the country's 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remains a top priority. It is imperative that we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that will promote and advance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the country. In the 2022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the Philippines' ranking climbed to 48th from 52nd in the previous year. This is reflective of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country's capabilities. However, more needs to be done as we begin a new era and face new challenges.

SGV'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2022* publication presents itself as a timely and relevant resource that significantly highlights the country's economic outlook, as we work on re-stimulating the domestic economy and building investors' confidence.

DTI looks forward to continued partnership with SGV & Co. We are confident that you will remain faithful to your mission to assist and support potential investors planning to expand operations in the Philippines. Let us continue working together for a resilient, inclusive, and brighter post-pandemic future.

Mabuhay po kayo!


ALFREDO E. PASCUAL
Secretary



MALACAÑAN PALACE
MANILA

MESSAGE

My warmest greetings to the readers of the latest edition of SGV & Co.'s yearly publication,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fter overcoming the brunt of the pandemic, the country is left with the challenge of pursuing projects, policies, and reforms that focus on reviving our economy and, more importantly, ou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toring business confidence in the country, especially in the sectors that have been most affected these past few years, is crucial as we strive to sustain the upward trajectory of our economy.

This publication features, among others, the path that the government has carved out to lead our nation's economic recovery in the coming years. Through the collaborations and dialogues that will arise therefrom, I anticipate better and more inclusive ways of doing business that will not only result in progress but also resilience for whatever challenges that may come our way.

The days to come will constantly remind us of the need to remain competitive, creative, and purposeful for our ventures to prosper. Rest assured that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stop creating a community and environment where all are free to invest in their passions as well as profit from them.

Allow me, therefore, to welcome everyon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nd let us look forward to the better, brighter, and more innovative future that we will mak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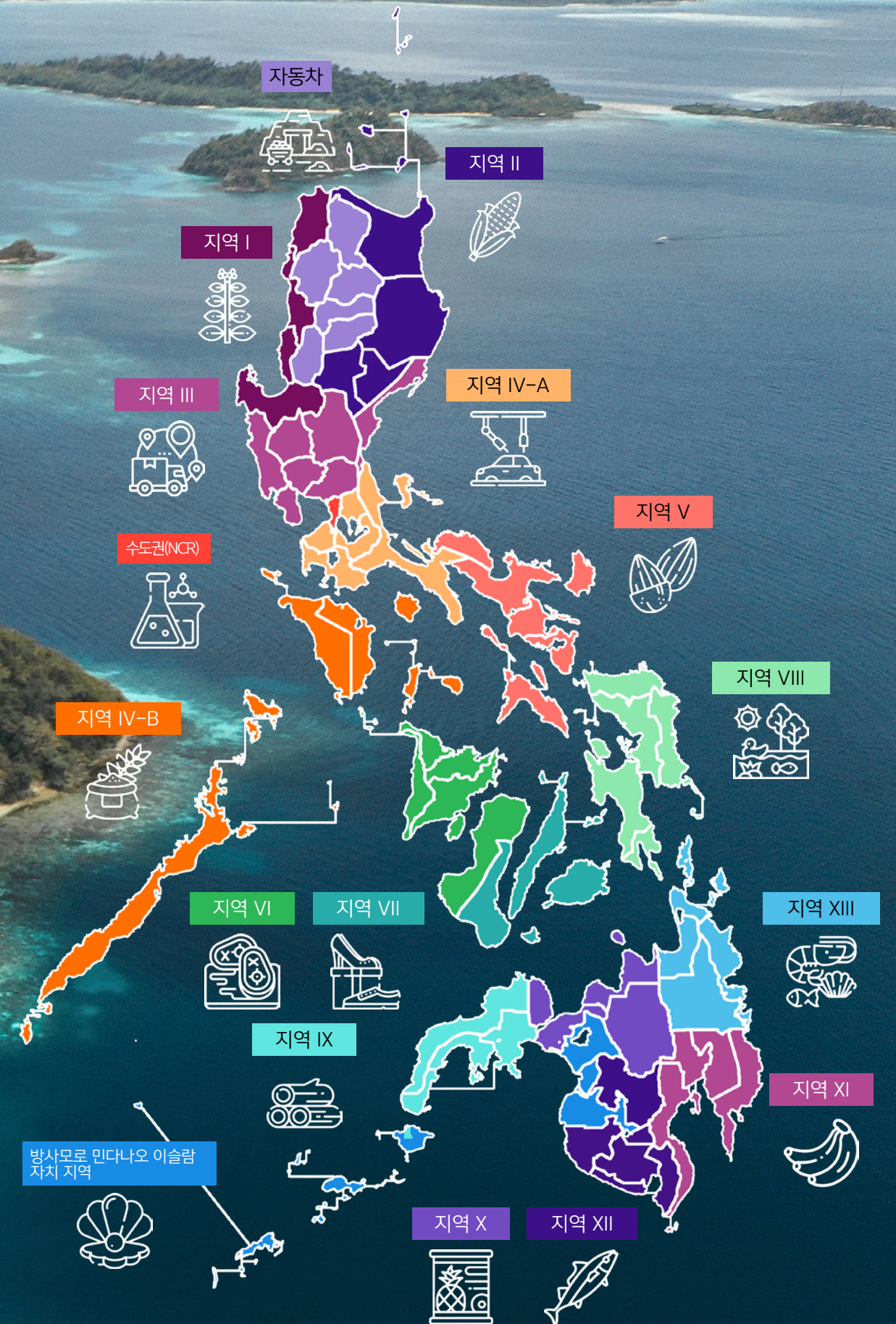
Maraming salamat po at mabuhay tayong lahat!


FERDINAND R. MARCOS J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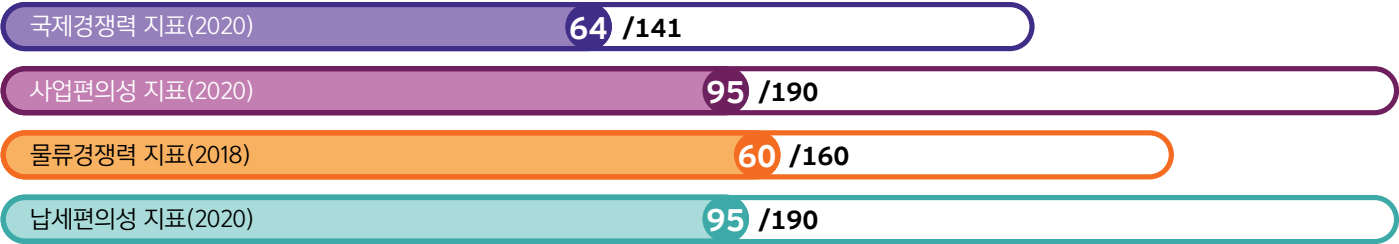
필리핀에 대한 소개

지역별 주요 상위 산업 및 2021년 지역별 G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지역 I Ilocos 지역 담배 및 망고 생산지 GRDP: 6,086억 페소	자동차 Cordillera 행정 지역 금속 및 비금속 광산지 GRDP: 3,106억 페소	지역 II Cagayan Valley 최대 옥수수 생산지 GRDP: 3,899억 페소	지역 III Central Luzon 국제 환적 중심지 GRDP: 2조 208억 페소
지역 IV-A CALABARZON 필리핀 자동차 산업 중심지 GRDP: 2조 7,283억 페소	지역 IV-B MIMAROPA 쌀, 코코넛, 대리석 채석장 GRDP: 3,697억 페소	지역 V Bicol 지역 필리(pili) 너트, 코코넛, 아바카, 마닐라삼(abaca), 바나나, 커피, 바라밀(jackfruit) 생산 GRDP: 5,401억 페소	수도권(NCR) 수도권 지역 화학, 섬유, 의류, 전자제품, 식품, 음료 등 산업재 GRDP: 5조 8,453억 페소
지역 VI Western Visayas 육가공, 가내공업(cottage industry) 방식의 제지업 GRDP: 8,741억 페소	지역 VII Central Visayas 신발, 정보통신기술, IT 서비스 GRDP: 1조 1,958억 페소	지역 VIII Eastern Visayas 해산물, 산림업, 광물업 GRDP: 4,610억 페소	지역 IX 잠보앙가 반도 목재, 무늬목, 합판 GRDP: 3,979억 페소
지역 X 북부 민다나오 동식물기름, 파인애플 통조림 생산 GRDP: 8,729억 페소	지역 XI 다바오 지역 최대 바나나 생산지 GRDP: 8,820억 페소	지역 XII 소크사르젠(SOCCSKSARGEN) 참치 및 기타 수산업 GRDP: 4,725억 페소	지역 XIII 카라가 지역 수산물 GRDP: 3,056 억 페소
BARMM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 지역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BARMM) 수산물, 진주, 선박 GRDP: 2,629억 페소			



경쟁력 및 효율성 지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75%
2020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시중은행의 운영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ial Framework)를 발표한 해principles in their operations

17

필리핀 정부가 유엔과 파트너십을 맺고, 인류와 지구의 전세대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협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개수

2022년 6월 기준 측정가능한 성과가 있는 SDG 목표의 수

2022년 6월 기준 측정가능한 지표가 있는 SDG 목표의 수

97개 중 37개
155개 중 60개

인프라 개발
2021년 11월 기준, 필리핀에는 총 415개의 경제단지가 존재

297개
IT 단지

76개
제조 단지

22개
농공업 단지

17개
관광수출 단지

3개
의료관광 단지

출처: PEZA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필리핀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관문으로서



국제 화물 환적 및 여객 환승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상위 주요 수출 품목

56%
가전제품

- 5% 기타 광물업
- 5% 기타 제조업
- 3% 기계 및 운송 장비
- 3% 점화케이블
- 2% 코코넛 오일
- 2% 화학
- 2% 금속 부품
- 2% 전자 장비 및 부품
- 1% 전지 및 관련 부품
- 19% 기타

2022년 12월 기준 상위 주요 수입 품목

24%
전자제품

17%
광물연료, 운할유

- 8% 운송장비
- 4% 기타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
- 4% 공업 기계 및 장비
- 4% 곡물 및 곡물 조제품
- 3% 제조품
- 3% 통신장비
- 2% 철강
- 2% 광석 및 금속 스크랩
- 29% 기타

2022년 12월 기준 상위 주요 수출 국가

- 16% 미국
- 14% 일본
- 14% 중국
- 13% 홍콩
- 6% 싱가포르
- 4% 한국
- 4% 태국
- 4% 대만
- 4% 네덜란드
- 3% 독일
- 18% 기타

2022년 12월 기준 상위 주요 수입 국가

- 21% 중국
- 10% 인도네시아
- 9% 일본
- 9% 한국
- 6% 싱가포르
- 6% 미국
- 6% 대만
- 5% 태국
- 5% 말레이시아
- 2% 호주
- 21% 기타

경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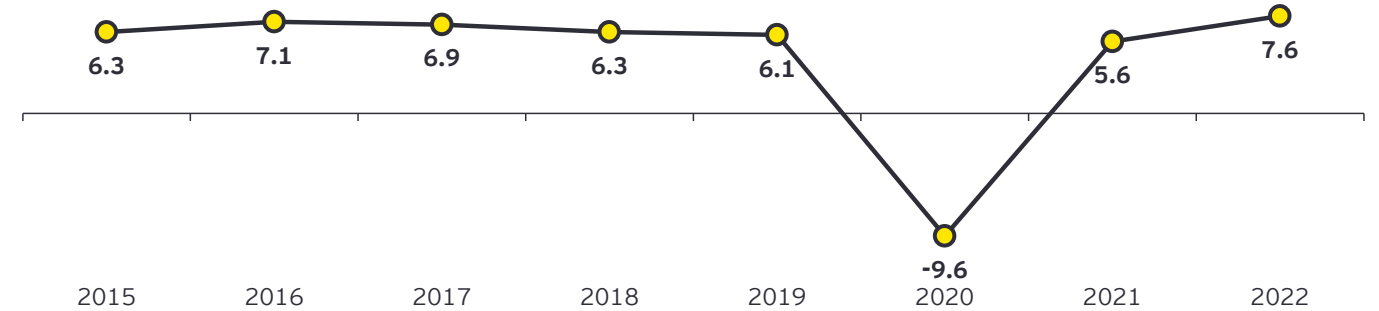
필리핀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경제 역동성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노동 시장이 활발하고 투자 및 해외 송금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의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관광, 금융 및 보험 산업, 부동산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GFC)와 코로나19 대유행 사이의 10년 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6.4%로 이전 10년 평균 4.5%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를 극복하면서 2021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었고, 공공투자 및 대외환경이 나아지면서 5.6% 성장했습니다. 필리핀은 중산국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획 재정부 인사들은 의회와 협력하여 국가의 더 큰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도 7.6%를 달성하며 정부의 목표치인 6.5~7.5%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에는 외부 충격과 인플레이션 고조로 인해 약 6.0~7.0% 정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고성장 기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팀은 또한 2028년 페르난데스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임기 말까지 국가의 빈곤율을 9.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마르코스(Marcos) 행정부는 5~6%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에 제정된 구조 개혁(기업 회복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외국인투자법, 공직법, 소매무역자유화법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와 관련한 예산 기획안을 통과시켰고 2023~2028년 필리핀 개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PDP)을 조기에 발표하여 당면한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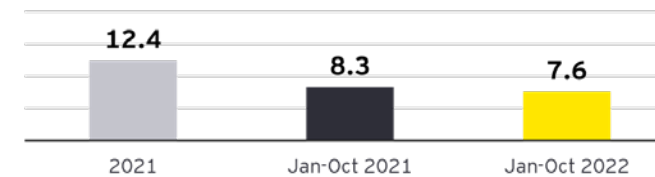
2015~2022년 실질 GDP 성장률 %,



코로나19 봉쇄 기간 전에, 필리핀은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6.58%로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로 인하여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낮은 수준인 -9.5%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봉쇄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2020년 실업률은 10.3%로, 전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3개 산업인 공업, 서비스업, 농업은 각각 고용 건수가 13.1%, 서비스업 9.1%, 농업 0.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2021년 아세안 지역 내 7.6% 기록한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5.7% GDP 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성장 동인은 GDP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인바운드 해외송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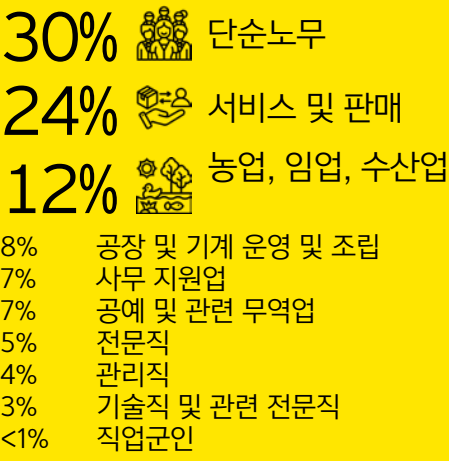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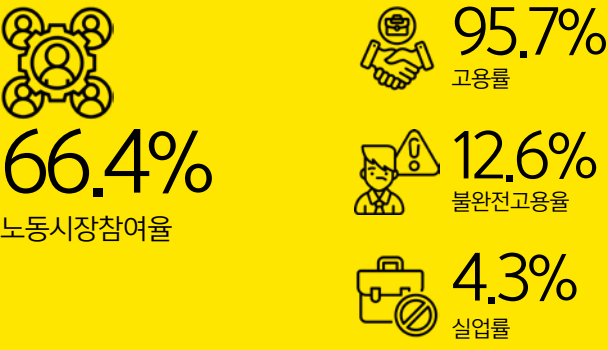


정부의 인프라 프로그램 및 FDI는 필리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는 인바운드 투자를 위축시켰으나, 2021년에는 반등하였습니다. 2021년 FDI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2년 FDI예상치로 기존 110억 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SG 또한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소매무역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공직법(Public Service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또한 기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FDI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주요 전망

기관	2023	2024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DBCC)	6.0% – 7.0%	6.5% – 8.0%
 ADB(아시아개발은행)	6.0%	None
 World Bank(세계은행)	5.4%	5.9%
 IMF(국제통화기금)	5.0%	6.0%

2022년 12월 기준 필리핀 노동인구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실질 최저임금

지역	농업 외	농업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 외
NCR	500.44	467.95	467.95
CAR	325.06	325.06	325.06
Region I	315.67	277.54	266.44
Region II	336.98	315.92	315.92
Region III	378.15	352.94	339.50
Region IV-A	371.79	342.74	342.74
Region IV-B	292.66	292.66	292.66
Region V	284.18	284.18	284.18
Region VI	382.98	348.94	348.94
Region VII	383.94	375.11	375.11
Region VIII	300.43	274.68	274.68
Region IX	303.63	279.41	279.41
Region X	330.79	320.61	320.61
Region XI	360.34	356.12	356.12
Region XII	308.98	291.35	291.35
CARAGA	294.86	294.86	294.86
BARMM	292.70	271.24	271.24

필리핀의 투자 등급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R&I) 기준

BBB+ 등급

2022년 4월 기준, R&I는 필리핀의 외화발행 등급 BBB+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이유:
 - ▶ 외부 차입에 대한 낮은 의존도
 - ▶ 풍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 안정적인 금융산업
- ▶ R&I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및 구조적 개혁 등을 포함한 신규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 ▶ R&I는 2022년 7.7%의 재정적자를 예상하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60%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Fitch Ratings 기준

BBB 등급

Fitch Ratings는 필리핀의 장기 외화발행부도등급(Long-Term Foreign 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으로 BBB 등급 및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부정적 전망의 주요 이유:
 - ▶ 필리핀의 중기 성장 전망
 - ▶ 재정 조정
 - ▶ 금리인상, 글로벌 수요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충격의 영향



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 ▶ 필리핀 내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5~10% 매출 성장 달성. 2022년에는 1.4~1.8% 성장에 머물렀으나, 연간 8~1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2022년 6월 기준, 고용인원 수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 29.1백만 달러, 1.43백만 명 고용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 메트로 마닐라 외 지방 개발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CT)의 2025년 디지털 도시 계획(Digital Cities 2025 Program) 상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미 25개 디지털 도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관광업

- ▶ 2020년 이전에는 관광 산업이 GDP의 11.7%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12.7%로 필리핀 GDP내 큰 비중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여행 제한으로 인해 해당 비중은 5.4%로 급감했고 일자리는100만 개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 유엔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2024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산업의 회복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관광 관련 일자리와 근로자, 방문객 및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광 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시장의 신뢰 및 방문객 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대응 및 복구 계획(Tourism Response and Recovery Plan; TRRP)에 103억 페소를 할당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 ▶ 필리핀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체계의 한 축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2008년에 국가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재생 에너지 총 목표 용량 및 각 재생 에너지원 별 목표 용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원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의 목표는 2030년 35%, 2040년 50% 입니다.
- ▶ 필리핀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수력에너지를 전체의 54.6%를 구성하는 계획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 ▶ PSA에 따르면 의료 부문은 연간 필리핀 GDP의 약 2%를 차지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업계는 6~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업계는 2020년에 -5% 성장을 기록하며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산업의 60%는 민간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민간 의료 서비스는 16% 감소한 반면, 공공 의료 서비스는 45% 증가했습니다.
- ▶ 필리핀 의료 시설 개발 계획(The Philippines Health Facility Development Plan)은 국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개선하고 잠재적 보건 비상 상황 및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23년에 230억 페소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제조

- ▶ 제조 부문은 필리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769억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9.8% 감소한 6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동 제한이 완화된 2021년에는 8.8%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 ▶ 제조 산업이 재기를 도모함에 따라, 2022년에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의 일자리는 이미 2022년 4월 현재 366만 개로, 팬데믹 이전의 일자리 수인 36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 ▶ 전기자동차산업발전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전략투자우선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등 많은 정책을 통해, 제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설

-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고 BBB(Build, Build, Build) 계획을 시작한 이후, 건설 산업은 2016~2019년 CAGR 10.5%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2020년에 업계는 23.2%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2018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 ▶ 2021년 12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1,020억 달러의 국가 예산 중 240억 달러를 BBB 프로젝트에만 할당하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 ▶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대통령은 “더 좋게 더 많이 짓기(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정부의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산업은 2023~2026년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 ▶ 코로나19 봉쇄 이전에 농업 부문은 연 평균 약 1% 성장하였으며, 약 350억 달러 수준으로 필리핀 GDP의 10%를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2%와 0.3% 감소했습니다.
- ▶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ACPC는 ‘젊은 농경 창업자 프로그램(Access for Young Agripreneurs; KAYA)’ 및 ‘중소 농수산업 대출 프로그램(AgriNegosyo; ANYO)’ 등 두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 이용. 두 프로그램 모두 농업에 기반한 프로젝트 대출을 통한 자금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광산업

- ▶ 필리핀의 광산업은 GDP의 약 0.7%를 구성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1.1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건설, 건설,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노천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중단(모라토리엄)을 수정했습니다. 2021년 광업은 GDP중 1,850억 페소를 구성했습니다.

IT 및 금융

- ▶ 2018년에는 전체 거래량의 10.0%만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봉쇄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1% 증가하며, 총 9억 1천만 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 ▶ 필리핀중앙은행(BSP)은 필리핀이 현금 없는(cash-lite) 경제가 되도록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까지 디지털 결제 비중을 모든 소매 거래의 50%로 높이고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 필리핀 성인 비중(financial inclusion)을 7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세

필리핀 헌법은 과세 규칙이 통일되고 공평해야 하며, 의회는 점진적인 과세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97 또는 Republic Act No. 8424)은 조세행정을 포함한 필리핀 국세청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종합 조세 개혁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규모 투자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하여,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종합 조세 개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4~5년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TRAIN Law 로 불리는 “가속화 및 포괄화를 위한 조세 개혁법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RA No. 10963)”을 통해 첫번째 조세 개혁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TRAIN Law 는 개인 소득세, 상속/유산세, 기부세, 광의의 부가가치세(VAT) 및 소비세(excise tax)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REATE Act 으로도 알려진 두번째 조세 개혁 패키지인 기업회생 및 기업 조세 혜택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RA No. 11534)”은 2021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법인세 및 기타 조세, 등록 기업법인에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의 합리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 유형	일반 법인세(Regular corporate income tax; RCIT)	최저 한세(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일반 내국법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25%	2023년 6월 30일까지 총소득(gross income)의 1%
 거주 외국법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25%	
 비거주 외국법인	총 소득(gross income)의 25%*	2023년 7월 1일부터 총 소득의 2% 

*총자산(토지 제외) < 1억 페소 및 과세대상 당기순이익(Net taxable income) < 5백만 페소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사설 교육 기관 및 비영리 병원 및 비영리

병원;

1%

2023년 6월 20일까지
과세소득의

10%

2023년 7월 1일부터
과세소득의

국제 항공사

총 필리핀 청구액(Gross Philippine Billings)의 2.5% 확정
세율(final tax)*;

해당 국제 항공사의 본국에서
필리핀 항공사에 유사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

다국적기업의 지역 또는 지역 또는 국가 본부
(Regional or area headquarters; RAHQs);

면제

다국적기업의 지역 운영본부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s);

25%

과세소득의

지점승금세

 **15%**

외국법인의 필리핀 소재 지사
(필리핀경제자유지구(PEZA)내 등록된 사업활동은 제외)

부가금부세

 **35%**

귀속법인세(grossed-up) 기준 금전적 가치의

기타소득세

확대된 외화예금제도에 따라 외국법인이
예치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이자 소득의 15%

법인간 배당금



   **면제**

   **면제**
최소 지분, 보유 기간 및 채투자 조건에 따라 변동

내국법인 주식의 매도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순자본이익



15% 확정 세율

Shares sold or disposed of through the
exchange



1%의 6/10

총매도가격 또는 총금액의

부당이익세(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IAET) 부과 폐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필리핀 원천에서 파생된 소득



25%
총수입의

법인 소재지 국가에서 해당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납세로 간주되는
세금을 허용하는 경우 수령하는 배당금



15%

기타 비례세율

 **1%**
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분기별 총 매출/영수금의

3%
2023년 7월 1일부터 유효
분기별 총 매출/영수금의

교환 거래 면세(Tax-free exchange of property)

- ▶ 양도인은 단독으로 또는 4인 이하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주식으로 교환하고, 양수인 경영권(control)를 획득하거나 유지
- ▶ 개편계획에 따라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 사전 국세청(BIR) 확인 또는 판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합병 또는 통합

경영권 또는 강화된 경영권

자본확충

재합병/재편입

조직개편

소득공제

교육비;
노동교육 비용의 150% 공제(특정
요건 충족 조건)

이자비용감면 혜택(Interest arbitrage)
법인세율(regular corporate
income tax; RCIT) 25%

적용 시, 20% 이자비용 감면

소득세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 비거주
시민,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

15 – 35%
25만 페소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25%
총소득의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추가 면제

13번째 달 급여 및 기타 유사한
혜택 최대 9만 페소 수령

원천징수 조세 체계

지급가능원천징수
(Creditable withholding tax; CWT)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소득에는 특정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은 소득
수령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salaries and
wages)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확정세액 (FWT)

FWT 시스템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수취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전액 및 최종 납부액으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부가가치세(VAT) 12%
일반적으로 재화, 용역의 판매, 부동산의 임대, 재화의 수입에
해당

부가가치세(VAT) 면제
법에서 정하는 특정 거래

부가가치세(VAT) 0%
수출 판매 등 포함하여, 법에서 정하는 특정 거래

기타 관세 및 세금

소비세

소비세는 국내 판매나 소비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필리핀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특정 상품에 부과됩니다. 특정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 외에도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12%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별도). 특정
수입품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DST)

인지세는 문서, 증서, 대출 계약, 임대 계약, 주식, 채권,
모기지, 보험 증서 및 서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의무, 권리
또는 재산의 인수, 양도, 판매 및 양도에 대한 소비세입니다.
이 세금은 문서의 제작자, 서명자, 발급자, 수령인 또는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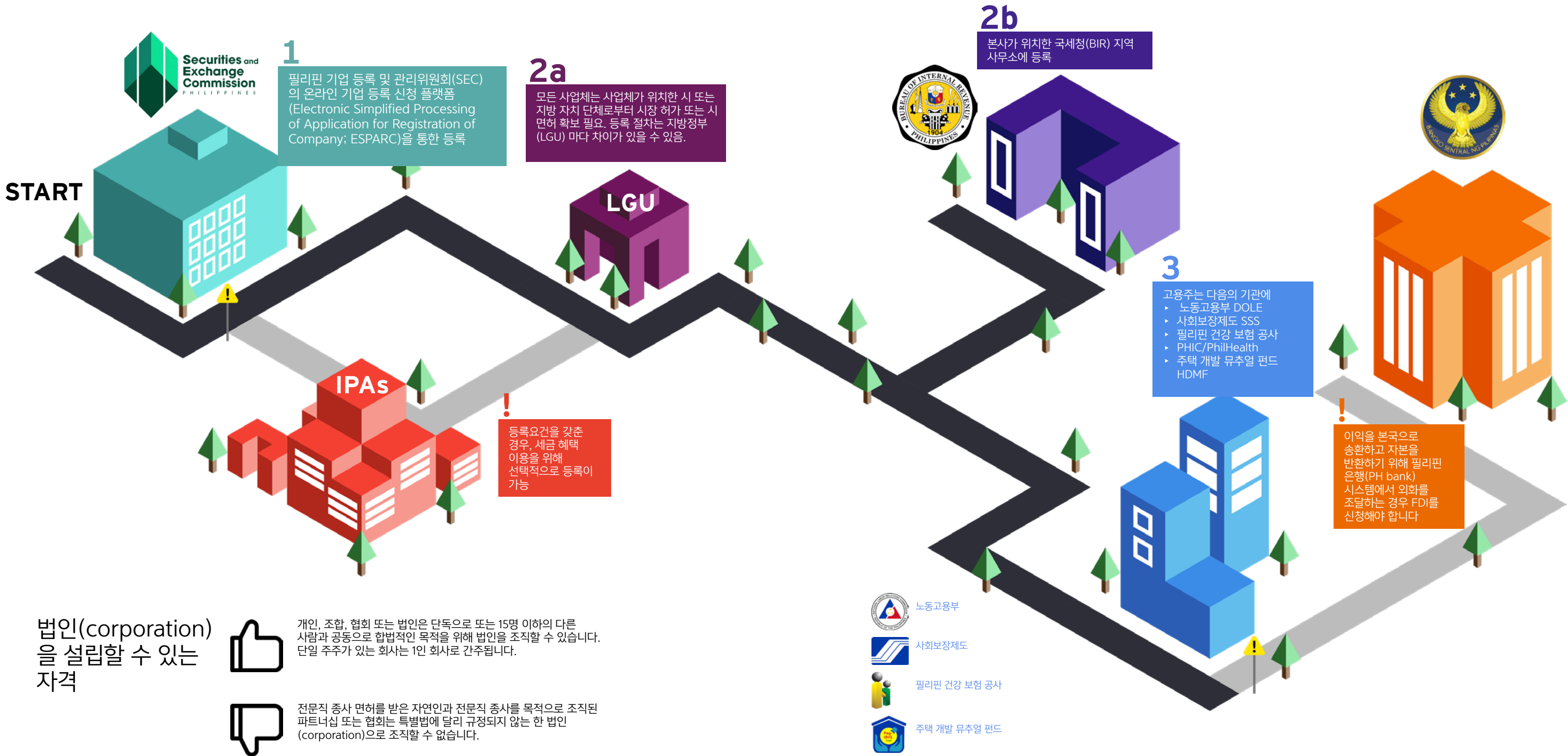
지방세

지방정부(LGU)는 법에 의해 달리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해당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활동 및 비즈니스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정부(LGU)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연간 종가세(ad valorem tax)와 양도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하기

2018년 사업편의 및 정부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Republic Act 11032)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정부서비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필리핀 내 창업을 장려하는 목적의 반관료주의청(Anti-Red Tape Authority; ARTA)을 설립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법인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DTI),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및 지방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필리핀경제지구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와 같은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기관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강력한 사회 경제적 조약의 결과로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에 걸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회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주요 투자 허브가 되어 이미 177,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필리핀으로 이주하였고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습니다.

필리핀으로의 입국

일반적으로 필리핀 방문객은 30일 동안 관광객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여행할 때 관광객은 출발 예정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귀국 또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요건은 필리핀을 여행하는 승객의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하기

외국인은 필리핀에서의 기간과 경제 활동에 따라 특별취업허가(Special Work Permit; SWP) 또는 취업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특별취업허가(SWP) 또는 취업 비자는 외국인이 배정되거나 고용될 법인인 현지 청원 회사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취업허가는 외국인의 활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경우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노동고용부(DOLE)에서 외국인고용허가증(Alien Employment Permit; AEP)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증(AEP)은 노동 시장에 대한 검토(일반 신문에 구인 공고 게시) 후 필리핀 내 자국민들이 해당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 의지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외국인은 다양한 종류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해야 하는 취업 비자의 유형은 해당 외국인의 시민권(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해당 회사의 대주주의 시민권과 관련), 외국인이 고용될 사업체의 유형, 그리고 청원 회사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취업 비자 유형, 서류 요건 및 비자 절차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서는 이민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가족 구성원(as accompanying or as included)은 피부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자와 필리핀에 있는 비자 신청 회사는 모두 외국인 고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 및 관련 노동법 위반은 비자 신청 회사와 외국인 모두에게 금전적 처벌, 추방 절차, 구금 및/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의 경계목록 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Sources: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투자 정책 및 인센티브

필리핀 법률 및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투자자 및 기업의 기본 권리를 보장합니다:

- ▶ 정부의 자산 몰수 또는 수용으로부터의 자유
- ▶ 국가의 통화 당국인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익, 자본 이득 및 배당금을 송금할 수 있는 권리
- ▶ 투자 청산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리
- ▶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취득권

필리핀 투자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기관이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합리화하기 위해 CREATE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투자 전 고려사항



1단계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필리핀의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SIPP)에 포함되어 있는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물류 및 공급망 통합과 연계된 전략적 위치 식별
- ▶ 인센티브 및 위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산업 고려



2단계

세금 혜택의 최적화 (예를 들어, 법인세감면(ITH)+특별법인세(SCIT) 및 추가 감세(Enhanced deductions) 간 비교, 또는 비등록사업자이나 현지 세무 혜택 대상 여부 확인 등)

기업 자격

일반 자격 요건

1.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IPP)에 포함된 프로젝트/활동에 참여
2. 목표로 한 지표 충족
3. 적절한 회계 시스템 구축
4. 전자접수 및 전자판매 요구사항 준수
5. 실소유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연간 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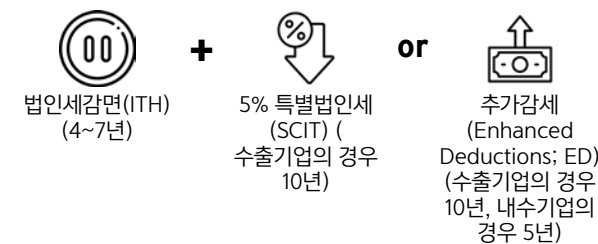
등록사업자(Registered business enterprise; RBE)



재정적 인센티브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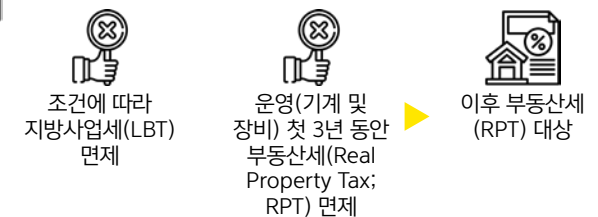


관세

자본 설비, 원자재, 예비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면제 (조건에 따름)



지방세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매출



매입 및 수입 *



비재정적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복수 입국 특권이 있는 특별 비이민 비자
- 외국인 고용
- 최대 75년의 장기 토지 임대



- 외국인 고용
- 통관절차 간소화
- 위탁장비 수입

2022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SIPP)

일반 지침

1. 개정된 2020 IPP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등록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는 Tier 2 및 Tier 3에 해당하려면 Tier 1의 모든 자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Tier 등급은 재정 인센티브 규제 위원회(Fiscal Incentives Regulatory Board; FIRB) 또는 투자 진흥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IPA)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IPAs)



Tier 1

-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활동

▶ 시장 실패로 인해 기본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 부가가치 사슬의 혁신, 업그레이드 또는 이동을 통해 가치 창출 생성
- ▶ 산업 발전에 중요한 부문에 대한 필수 지원 제공

▶ 위와 같은 부분이 잠재적인 비교 우위로 인해 부상하고 있음



코로나19와 대응과 관련된 모든 적극 활동



도심 밀집 지역 외 고용기회 창출 활동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모든 적극 제조 활동



농업, 어업 및 임업



환경 또는 기후 변화 관련 프로젝트



에너지



전략적 서비스



헬스케어, 재난 리스크 감축 관리 서비스



대규모 주거시설



LGU-PPP를 포함한 인프라 및 물류



혁신 요인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수출 제품의 생산 및 제조, 서비스 수출 등의 활동

수출 활동의 특정 지침에 대한 개정:

물류 서비스

- ▶ 창고업
- ▶ 재고 관리
- 물품 운송
-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목적으로 IPP에 포함되어야 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 산업용 임업지

▶ 채굴

▶ 도서 출판 또는 인쇄

▶ 석유 제품의 정제, 저장, 유통

▶ 재생 에너지

▶ 관광

▶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 장애인의 재활, 자기계발 및 자립

Tier 2

▶ 소모품, 부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활동

▶ 현지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산업 발전에 중요한 중간

▶ 서비스원유 정제를 포함한 수입 대체 활동



그린 에코시스템
통합 폐기물 관리, 처리 및 재활용 등록을 위해서는, 환경 및 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의 승인 필요



건강 관련 활동
백신 자립 프로그램 및 그 외 승인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DOH),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또는 이에 준하는 부처의 승인 필요 agencies



국방 관련 활동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필리핀군(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 또는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승인을 동반함



산업 밸류체인 격차
철강, 섬유, 화학 또는 녹색 금속 가공 등 산업 내 격차를 해결해야 함



식량 안보 관련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의 식량 안보 차원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는 등록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Tier 3

▶ 활동에는 상당한 부가가치, 높은 생산성, 향상된 효율성, 과학 및 건강 분야의 돌파구,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구 개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 등록 또는 허가된 새로운 지식 및 지적 재산의 생성

▶ 등록사업자(RBE)가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실용신안의 상업화

▶ 첨단 기술 제조

▶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디지털 생산 기술을 적용한 연구 개발 활동:

▶ 로봇

▶ 인공 지능

▶ 첨가제 제조

▶ 데이터 분석

▶ 디지털 전환 기술

▶ 나노기술, 생명공학

▶ 집중 중자의 생산/도입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로 기술적인 제조 및 생산

▶ 장비, 부품 및 서비스 제조

지적재산권 및 R&D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 항공 우주

▶ 의료 서비스(PPE 제외)

▶ 사물 인터넷 장치 및 시스템

▶ 완전한 웨이퍼 공정

▶ 고급 재료

Tier 3 가이드라인 상세

1. 등록 신청서에는 DOST, 무역산업부(DTI) - 경쟁력 및 혁신그룹(Competitiveness and Innovative Group), 또는 투자위원회(BOI)가 식별할 수 있는 기타 기관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우주 관련 인프라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필리핀 우주국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혁신지원시설 구축

▶ R&D 허브

▶ 우수 센터

▶ 과학 기술 공원

▶ 혁신 인큐베이션 센터

▶ 기술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 우주 관련 인프라

21 |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 22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RE Act)

* 요구 사항 및 조건에 따라 다름

- 법인세감면(ITH)*

상업적 운영의 개시일로부터 7년 간
- 법인세 10%*

법인세감면(ITH) 적용 후 기준, 과세소득에 적용
- 순영업손실 이월(Net operating loss carry-over; NOLCO)*

상업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간 총소득에서 공제
- 정률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통한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VAT) 0%*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성된 연료 또는 전력 판매 및 공장 시설의 개발, 건설 및 설치에 필요한 상품, 자산 및 서비스의 현지 공급 구매에 적용
- 비과세*

증명서 발급 후 10년 이내에 기계, 장비, 재료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
- 현금창출 기반 인센티브*

킬로와트시(kWh) 기준
- 면세*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 전액에 적용
- 부동산 세율 특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실제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장비, 기계 및 기타 개선 사항에 적용
- 세액공제(Tax credit)*

장비 및 기계의 설치와 관련된 국내 자본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해 VAT 및 수입 관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Opinion 23, s. 2022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이 필리핀 헌법 제12조 2항에 따른 외국인 지분 40%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재생에너지(RE) 법의 시행 규칙을 수정하는 문서(회람번호 DC2022 11-0034)를 발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FIA)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은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자유화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자의 정의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필리핀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일부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1. 필리핀 시민
2. 필리핀 시민이 100% 소유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연합 (association)
3.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필리핀 시민이 발행 자본금과 의결권의 최소 60%를 소유
4. 필리핀 시민이 100% 소유한 외국 기업
5. 수탁자가 필리핀 국민이고 기금의 60% 이상이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또는 기타 퇴직/이직 기금의 수탁자

개정

부처 간 투자 촉진 조정위원회(Inter-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 IPCC)

투자를 중지,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통령의 권한

영세, 중소 및 기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10만 페소 영세 중소 내수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

▶ DOST에 따른 고급 기술 포함

▶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촉진 회사로(startup enablers)로 승인

최소 15명의 필리핀인 직접 고용

20만 페소

영세 중소 내수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별도로 정한 경우)

제12회 일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한 사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 없음(목록 A)

녹음 및 인터넷 비즈니스를 제외한 대중 매체

납입 자본금이 2,500만 페소 미만인 소매업 기업

사립 탐정, 감시원 또는 경비원 조직 및 운영

군도해역, 영해, 배타적경제수역의 수산자원 활용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폭죽 및 기타 불꽃 장치 제조

국내 또는 해외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민간 채용

국방 관련 구조물 건설 계약

광고
- 외국인 지분 최대 40%(목록 A)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업 활동

협동조합

소규모 채굴

조종석의 소유권, 운영 및 관리

생물학, 화학 및 방사능 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 외국인 지분 최대 40%(목록 B)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조달 사업

사유지 소유권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

GOCC에 대한 자재, 상품 및 상품 공급 계약

콘도미니엄 유닛의 소유권

사설 무선 통신망

필리핀 경찰 허가가 필요한 제품 및/또는 성분의 제조, 수리, 보관 및/또는 유통

위험한 약물의 제조 및 유통

PAGCOR와의 투자 계약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

마이크로 및 소규모 국내 시장 기업: (1) DOST에서 결정한 선진 기술을 포함하는 기업; 또는 (2) 리드 호스트 기관(예: DTI, DICT 또는 DOST)에서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촉진 회사로 보증받은 기업, 또는 (3) 직접 고용인의 대다수가 필리핀인인 기업

공직법(Public Service Act)

공직법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인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기업이 국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공공 서비스법은 공공 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개정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공익사업이란 다음 중 하나를 공익을 위해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전기 배급
- ▶ 전기 송전
- ▶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 ▶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포함한 물 파이프라인 분배 시스템 및 폐수 파이프라인 시스템
- ▶ 항구
- ▶ 공공 유틸리티 차량(Public utility vehicles; PUV)

공공 유틸리티 차량(PUV)은 유료로 승객 및/또는 국내 화물을 운송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의미합니다.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운송 차량은 PUV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외국인은 중요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외국인의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유 기업이 관리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기업

외국 정부/외국 국유 기업은 공공 시설 또는 중요 기반 시설로 분류되는 공공 서비스에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공 시설이나 중요 인프라가 아닌 경우 해외 제한은 없지만 FIA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소매무역자유화(Retail Trade Liberization Act)

2000년 소매 무역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은 필리핀 소매 산업을 자유화하여 현지 및 해외 투자자들이 품질, 다양성 및 가격 측면에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구조화되고 경쟁력 있는 소매 시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개정



2,500만 페소의 최소 납입자본금



호혜성에 대한 요구 사항



오프라인 매장이 1개 이상인 경우 해외 소매업체의 경우 매장당 최소 1,000만 페소 투자



외국 소매업체는 항상 필리핀에서 최소 납입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자 임대법(Investor's Lease Act)

공화국법 (Republic Act; RA) 제7652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75년 동안 필리핀의 상업용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축-운영-이전법(Build-Operate-Transfer Law; BOT Law)

구축-운영-이전법(BOT법)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일반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서비스 제공에 민간 부문 주체의 참여를 위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윌슨 P. 탄(Wilson P. Tan)
회장(Chairman) 및 필리핀 대표
(Country Managing Partner)
wilson.p.tan@ph.ey.com
(632) 8894 8127



마리아 비비안 C. 루이즈(Maria Vivian C. Ruiz)
부회장(Vice Chair) 및 부대표
(Deputy Managing Partner)
maria.vivian.g.cruz-ruiz@ph.ey.com
(632) 8894 8170



마리 스테파니 C. 탄-하메드
(Marie Stephanie C. Tan-Hamed)
전략 및 거래 담당 파트너
(Strategy and Transactions Partner)
marie.stephanie.c.tan-hamed@ph.ey.com
(632) 8894 8147



쉐릴 에델린 C. 옹(Cheryl Edeline C. Ong)
법인조세 서비스 담당 파트너
(Business Tax Services Partner)
cheryl.edeline.c.ong@ph.ey.com
(632) 8962 1593



피델라 T. 이십-레이즈(Fidela T. Isip-Reyes)
PAS - 이민 및 ITTS 리더
fidela.t.isip-reyes@ph.ey.com
(632) 8894 8204

SGV |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전문 서비스 회사입니다. 저희는 기업 활동 및 리더 육성을 통해 더 나은 필리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포괄적인 성장을 촉발함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찰력과 양질의 서비스는 기업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우리 직원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세금, 전략 및 거래, 컨설팅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작업하는 SGV 팀은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질문을 합니다.

SGV & Co.는 Ernst & Young Global Limited의 협력 회사입니다. EY는 각각 별도의 법인인 Ernst & Young Global Limited는 글로벌 조직을 의미하며 영국 보증 유한회사인 Ernst & Young Global Limited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Y는 고객, 사람,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나은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양한 EY 팀은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감사 업무를 통해 신뢰를 제공하고 고객이 성장, 변화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Y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은 ey.com/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y.com/ph를 방문하십시오.

© 2023 SyCip Gorres Velayo & Co.
All Rights Reserved.
APAC No. 10001128
ED None

#SGVforABetterPhilippines

본 문서는 요약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리서치, 전문가 판단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SGV & Co. 또는 글로벌 Ernst & Young 내 구성원은 본 문서 상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참조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